



OPEC·非OPEC 전문가회의 결과

▲日字: 1989. 1. 26

▲場所: 런던

▲參加者: OPEC·非OPEC 석유전문가

- OPEC側: 6個國委員會(알제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 非OPEC側: 양골라, 中國,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지아, 오만

※ 업저버: 노르웨이, 北예멘, 소련, 캐나다, 앤버타州, 美國 텍사스, 알라스카州대표

1. 회의경과

• OPEC·非OPEC전문가 합동회의는 개최 하루만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었다.

〈共同聲明 要旨〉

- ① 양측은 지난해 11월 OPEC총회 합의이후 石油市場의 긍정적 전개에 주목하고, '89年 石油市場 전망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졌다.
- ② 非OPEC側은 OPEC의 배럴당 18달러 가격목표의 달성을 지지했으며, 양측은 石油市場 안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 ③兩側은 石油시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특히 2/4분기에 있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음.

- ④ 非OPEC側은 수개월내 石油시장 안정에 필요한 협조조치를 취할 것을 그들의 관계당국에 권고하기로 합의했음.
- ⑤ 양측은 이같은 노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영구적인 장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는데 합의했음.

2. 評價

• 이번 회의는

- ① 石油市場에서 OPEC·非OPEC의 공동책임화인
- ② 非OPEC側의 그들 관계당국에 구체적 협력방안을 권고키로 합의한 사실
- ③ 2/4~3/4분기 수요감퇴에 대비한 구체적 조치必要性 인정등에서 공통확인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 ① 양진영 石油長官會議의 즉각개최 실패 ② 세부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몇가지 합의사항을 내놓은 있으나, 이것이 모두 추상적 합의에 불과할 뿐 시황현실적 처방을 제공하는 성공적 회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OPEC側은 이번 회의결과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 이번 회의가 향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 회의 참석자들이 石油장관이 아닌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같은 自評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 최소한 OPEC · 非OPEC간의 합의가 정치구호적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으로 옮겨져 논의되기 시작 했다는 점과
- 회의참가 범위가 크게 확대되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 · 장기적으로 OPEC · 非OPEC간의 협조분위기

가 크게 고무되길 것이라는 것을 豫示해 주고 있
 •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마련 실패에 따라 금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油價회수 속도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주간석유뉴스>

〈共 同 聲 明 全 文〉

지난해 11월의 OPEC總會에서의 시장안정화를 위한 非OPEC 산유국과의 접촉 재개발결정과 오만石油장관의 훌륭한 교섭노력의 결과로 OPEC의 전문가대표단들은 지난 1月26日 非OPEC 전문가대표단들과 石油市場 안정의 달성을 기여할 협조방안 모색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OPEC 전문가대표단은 알제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이며 非OPEC대표단은 캐나다의 엘버티카, 앙골라, 中國,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지아, 노르웨이, 오만, 소련, 美國의 텍사스 및 알리스카카, 北예멘등이다.

캐나다의 엘버티카, 美國의 텍사스와 알리스카카, 소련, 노르웨이, 北예멘은 업저버자격으로 참석하였고, OPEC 사무총장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회의를 주재하였다.

兩側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1月 OPEC 총회이후 石油市場의 긍정적 사태진전에 주목하면서 89년의 石油시장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非OPEC은

가능한 조속히 OPEC이 目標油價 배럴당 18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지지하며, 兩側 전문가들은 소비국이나 산유국의 이익을 위해 石油市場 안정구축에 대한 공동책임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미 달성되고 있는 긍정적 진전상황의 촉진과 특히 89년 2 / 4분기의 石油市場 강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88년 11월의 OPEC결의한 286호에 호응하여 非OPEC대표단은 수개월내 石油市場 안정화에 필요한 협조조치를 그들의 관계당국에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兩側대표단은 이같은 노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산유국들과 소비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항구적인 石油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영속적이며 장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는데 합의하였다.

□ 石油圖書案内 □

석유의 이모저모

- 大韓石油協會 -